

수요 빛나간 송정역사... 앓을 자리도 없다

1만2천명에 맞춰 지은 역사
SRT 개통... 2만5천명 이용
주차장·대합실 등 태부족
복합환승센터 착공은 요원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사에 대한 이용객 추세가 빛나고 큰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호남고속철도(KTX)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1만2000명으로 예상하고 지난 2015년 2월 문을 연 광주송정역은 이용객이 예상보다 5000~7000명을 웃돌더니 최근 수서발 KTX(SRT)가 개통하면서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5000명 수준으로 치솟아 근시안적인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어딜 가도 '복새동' = 수서발 KTX 개통 1주일을 맞아 지난 16일 찾은 광주송정역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승객으로 혼잡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 16편이 운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주차장, 대합실, 식당 등 역사 곳곳이 복새동을 이뤘다.

3층 대합실에선 앉아서 쉴 공간을 찾지 못한 승객들이 선 채로 열차 탑승시간이 되기를 기다렸고, 주차장에선 빈 곳이 없어 주차를 하지 못하자 짜증을 내며 되돌아나가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주차장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수서발 KTX 개통 이후 평일엔 오전 10시, 주말엔 오전 7시쯤이면 400면 규모의 주차장이 가득 찬다고 했다. 역사를 관리하는 코레일 측은 지난 15일 부라부라 200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역사 주변에 개설했지만,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찾기가 힘들고 주차면 역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용객들 설명이다.

역에서 만난 김순덕(여·64)씨는 "앓을 의지도 없는데 송정역이 무슨 광주의 관문이다"고 했고, 신길호(58)씨는 "서울서



18일 광주송정역사 내 맞이방을 꽉 채운 승객들이 KTX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려오는 아내를 마중나왔는데 차 달 곳이 없어 혼났다"고 했다.

대수롭지 않은 불만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역사 내 커피숍·편의점·식당 등 각각 한 곳뿐인 점도 2만5000명이나 되는 이용객에게 커다란 불편으로 다가온다.

송정역사가 이처럼 불편을 사는 이유는 호남선 KTX만 운행하던 이곳에 지난 9일부터 수서발 KTX(목포→강남)까지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존 48면 운행되던 고속 열차가 86편으로 대폭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부터 규모가 턱없이 작게 지어진 역사(驛舍)에 있다고 보는 게 설득력 있다는 지적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 송정역사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역사 운영 초반부터 제기됐다. 주차면은 부족하고 대합실도 비좁다는 불만이다. 역사 앞에 택시 및 버스 승강장, 주차장 입구가 한데 몰려 '잘못된 설

계로 만성적인 체증을 부른다'는 비판도 나왔다.

타지역 KTX 역사보다 송정역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것도 '호남출대 또는 지역 차별'이라는 의혹을 샀다. 이용객 수가 비슷한 울산역(1만5000여명)과 비교하면 연면적은 4699㎡, 8575㎡로 송정역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주차면도 울산역 1049면 송정역 400면(2015년 4월 기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용객 수가 송정역 절반 수준인 신경주역(7000여명)의 경우 연면적이 3만7405㎡로 송정역보다 8배 넓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철도시설공단 측은 송정역 규모를 설계치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건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당시 불거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수서발고속철도 공사와 송정역사 건립공사가 지난 2011년과 2013년 각

각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송정역사 축소 건립 또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이용객 불편을 가져왔다는 비판은 피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측은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땀질 처방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사 개관 이후 이용객이 늘었다며 엘리베이터 2대와 에스컬레이터 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화장실을 2개소(남·여 13) 늘린 게 고작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줄 송정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지난 2014년 착공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착공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용객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근혜 게이트' 진실 규명 속도

특검 21일 현판식 청와대 압수수색 예고
뇌물죄 입증 관건... 김기춘 등 출국금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전방위 규명 활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의 본격 수사 돌입이 조망기에 들어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 계획"이라며 "언제든 지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박 대통령의 최씨 각종 이권 지원 의혹 ▲삼성그룹의 정유라 등 최씨 일가 지원 의혹 ▲성형외과 '비선 진료'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이다.

특검은 이주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의혹 인물이나 기업·기관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과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대치동 D빌딩에 입주한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나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특검은 조사 장소와 관련해 "대통령이 여기

(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답해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휴일에도 박한철 전 재소장과 상당수 헌법연구관 등이 출근해 자료 검토를 이어갔다.

이외 함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이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더불어 오는 22일 벌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최순실씨와 최순득·정유라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야당 의원 현장 조사 "김 원장 서명 달라"

"김영재 장모 진료차트 조작 의혹"

국조특위 야당 의원 현장 조사 "김 원장 서명 달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醫院)'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의원 장모의 진료차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날 현장조사에서 장모의 진료차트에 나온 김 원장의 서명이 다른 차트의 서명과 확연히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병원이 휴진했다고 설명했다가 프로포폴 사용 기록이 발견되자 "장모 진료기록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장모의 진료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프로포폴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특검팀에 지원 요청을 했고 특검팀 수사관들이 김영재 의원을 방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 또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 흉터에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서술이나 피부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와대는) 수술할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 전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곤하면 얼굴 한쪽에 경련이 생기거나 쪼이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셔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장의 전문 분야인 피부 시술을 하지 않았던 김 모에 청와대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박 대통령) 흉터가 콤플렉스인가 봐요"라고 말했다.

또 최순실씨가 1주일에 1번꼴로 '김영재 의원'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KTX 충청권에 5개역... '저속철 되나'

논산역·세종역 신설 추진

호남선 KTX가 지나는 충청권에 신설 역이 추진되면서 '저속철' 우려가 일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호남선 KTX역 신설 움직임이 활발하다. 충청권에는 호남선 KTX가 지나는 곳에 이미 3개(공주, 오송, 천안아산)의 역이 있는데 여기에 논산·훈민소역과 세종역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논산·훈민소역은 설계비 3억원이 지난 해 정부 예산에 포함돼 사업에 속도가 붙

으며, 세종역 또한 국회 국토위 소속인 이해찬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호남선과 전라선 KTX(상행선)는 목포(여수)를 출발해 충청권인 '논산~공주~세종~오송~천안'을 거쳐 서울로 올라간다. 신설 움직임 보이는 2개 역사 건설이 확정되면 사실상 호남선 KTX가 지나가는 충청권 모든 지자체에 KTX역이 들어선다. 역이 많아지면 역 간 거리가 좁아지고 운행 속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논산·훈민소역 예정지는 인접 역인 공주역과 불과 22km 정도 떨어진 곳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종역이 신설되면 역 간 거리가 40km인 공주역~오송역 사이에 들어선다. 하루 이용객이 400명에 그쳐 유령역으로 전락한 공주역을 20km 정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논산·훈민소역과 세종역이 들어오는 셈이다. 오송역과 천안아산역 구간 거리가 28km인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충청권의 모든 호남선 KTX역 간 거리는 20km대로 떨어진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이해찬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호남선과 전라선 KTX(상행선)는 목포(여수)를 출발해 충청권인 '논산~공주~세종~오송~천안'을 거쳐 서울로 올라간다. 신설 움직임 보이는 2개 역사 건설이 확정되면 사실상 호남선 KTX가 지나가는 충청권 모든 지자체에 KTX역이 들어선다. 역이 많아지면 역 간 거리가 좁아지고 운행 속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논산·훈민소역 예정지는 인접 역인 공주역과 불과 22km 정도 떨어진 곳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종역이 신설되면 역 간 거리가 40km인 공주역~오송역 사이에 들어선다. 하루 이용객이 400명에 그쳐 유령역으로 전락한 공주역을 20km 정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논산·훈민소역과 세종역이 들어오는 셈이다. 오송역과 천안아산역 구간 거리가 28km인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충청권의 모든 호남선 KTX역 간 거리는 20km대로 떨어진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가중 1억원이상 시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증권,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셀스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코디셀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 이는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미(훈니무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수령

010-3598-7080

2017학년도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광주국제기독교학교(GCIS)는 크리스천 특목학교로서 영성·영어·자율의 정신에 기초하여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유학의 꿈을 지닌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미국의 크리스천 사립고교, 칼리지와 자매 결연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과 신앙 공동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주님의 일꾼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 설립자 이 환 수 박사
▶ 서증, 광주일고 졸업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졸업
▶ 전. 텍사스 한인회 회장
▶ 현. 텍사스 ChemLoo Lab 회장

1. 교육과정
· 미국 고교 편입 및 입학
· 미국 칼리지 편입 및 입학
· 미국 4년제 대학 편입
· 국제반 - 초등 중등 과정(유학)
· 미국 현지 실시간 화상영어 과정
· 국제반 - 초등 중등 과정(국내대학)
· English Summer Camp
· 미국 텍사스 탐방 캠프
· 국제반 - 고등과정 (유학)
· 국내반 - 고등과정 (국내대학)
· 미국 대학 진학과정 (유학)

2. 특 전
· 크리스천 우대
· 소수정원제 수업
· 최상의 교수사 원비
· 미국학교 입학까지 미국 현지 본교(GCDS)
· 담당자의 지속적 학사관리
· 다수의 미국 현지 고교, 대학들과 최선의 교육 인프라를 통하여 미국 고교 편입과 미국 4년제 대학에 편입하게 됩니다.

3. 신입생 추가모집 및 입학설명회
▶ 대상
· 국내 중·고교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
· 국내대학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
· 미국고교 및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

4. 특별전형 (장학생 선발)
▶ 대상 : 초·중·고
▶ 1차 전형 : 영어·수학
▶ 2차 전형 : 학교장 면접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생활기록부
▶ 전형일시 : 2017.1.9(월) 오전 11시
▶ 합격자 발표 : 2017.1.16(월) 오전 11시
※ 단, 가족사비유은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국제기독교학교 홈페이지 참조 (www.gc-ds.com)
·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입학 담당자
Tel : 061-381-0000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 동동길 42-34 (성도리 산 72) Tel : 061-381-1365

www.gc-ds.com
광주국제기독교학교
광주국제기독교학교